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프로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수업 만족도 높이기

학생 성장 돕는 미래 수업 디자인 현장 적용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상황 속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6월15일~12월31일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미래 수업 디자인의 현장 적용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수업역량 강화 및 교실수업 기

선을 희망하는 교사를 위한 개별 맞춤형 수업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중등 교원으로 이뤄진 12개 팀을 구성하고 교사 개인과 컨설팅 위원을 연결해 1년 동안 다각적·임제적·지속적인 개별 맞춤형 수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2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 프로젝트에 참가한 4개 팀은 '수업 기본부터 다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 '알과 삶'을 연결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수

업', '사고력 교육을 위한 수업 컨설팅'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운영된다. 1년 동안의 성장 활동을 누적하고, 성장 결과를 공유해 수업 혁신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교장·교감으로 구성된 4개 팀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학교 경영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중등 프로젝트에 참가한 4개 팀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국어 수업', '거꾸로 수업 기반의 질 높은 수학 교실 실현', '코로나 상황 속 개별 과학 실험과 탐구활동 전개', '다교과 연계형 기술 교수학습 방법 개발'이라는 교과별 주제로 운영된다.

비대면 중심의 다양한 수업 모델을 고안하고, 원격 및 대면 혼합 수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게 된다.



특히 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생활교육, 학급활동 등이 연계·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학년 말 12개 팀의 현장 밀

착형 컨설팅 결과를 수합해 '성장 공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성장 공유 워크숍'은 참여 교사의 성장일지 또는 수업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사의 성장을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업에 참가한 한 초등교사는 "이번 서부교육지원청의 '수업에 자신 있는 교사되기' 프로젝트가 교사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크게 감동 받았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 교사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내년에 이 프로젝트를 확대해 코로나19 시대의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집중 점검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사전예방...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133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집중 점검은

최근 체육계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방안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근절, 휴식권 보장 등 인권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운동부 현장 컨설팅 등 온라인 교육과 운동부 관계자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오는 8월부터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제로(Zero)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2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 역할극 체험 등 학생선수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이번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내 잠재한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하계 입영훈련 출정식



순천대학교 (총장 고영진) 학군단이 지난 3일 오후 2시 학생군사교육단(ROTC) 1층 강의실에서 '2020년 하계 입영훈련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정식은 고영진 총장과 한권수 학군단장을 비롯해 학군사관후보생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소신고, 총장격려사, 격려금 및 감사패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순천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21명은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인화기, 수류탄, 각개전투, 유격 등 장

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력단련과 전술훈련을 받게 된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훈련을 이수하고 대한민국 장교가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키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진 총장은 오는 7월 23일 육군 학생군사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군사관후보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중·고 원격수업 콘텐츠 100과목 제작

블렌디드수업 지원단 교사 참여



전남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남도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생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과목 별 특성을 살리는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콘텐츠 100과목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7일(화) 밝혔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콘텐츠를 제작·보급하며, 등교수업 중에도

주말이나, 방과후, 방학기간에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을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뒤늦은 등교개학 이후 기존 원격수업 시범학교 60교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교사 47명으로 블렌디드수업 지원단을 구성해 전남 학교에 맞는 전남형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이들이 만드는 100과목 400차시 분량의 원격수업 콘텐츠는 '전남교실 ON.com'에 탑재해 교육현장의

교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7일(화) 순천마리나컨벤션에서 블렌디드수업지원단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등 원격수업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총괄책임자인 문무성 강사를 초빙해 △저자물의 교과서 게재 이해 △보상금 지급 △저작물 전송을 위한 복제방지 조치 △시험문제 복제 △폰트 분쟁 예방법 등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에 앞서 저작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원단 교사들은 저작권 문제 없이 양질의 원격수업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사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위경중 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앞당겨 도입됐고,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이 일반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비한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